

보도 일시	2022.11.23.(수) 조간 2022.11.22.(화) 11:00	배포 일시	2022. 11. 22.(화) 06:00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스마트해운물류팀	책임자	과 장 홍근형 (044-200-6205)
		담당자	사무관 김창묵 (044-200-6201)

## 자율주행차 자동 선적·하역기술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 지원시스템 성능시험장 광양항에 건설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3일(수) 광양항에 ‘자율주행차량 자동 하역지원 시스템 성능시험장(테스트 베드)’ 설치에 착수하고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자동차는 200만 대가 넘어가며, 대부분은 차량운반선을 통해 해외로 운송된다. 하지만, 앞으로 운전대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량이 등장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선박 내에는 자율주행차량이 운행에 사용하는 위성항법신호(GPS)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별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150억 원을 투자해 선박 내에서의 자율주행차량 이동 기술, 항만 야적지와 선박 내부 고정밀 지도 변환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에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지원 시스템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설치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다.

이번에 착공하는 성능시험장은 실제 자동차 하역환경과 유사한 형태의 야적장과 차량운반선의 내·외부를 본 딴 3층 규모의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능시험장은 2023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자율주행차량을 선적하거나 하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들을 검증해볼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세계 2위의 자동차 운송사, 세계 3위의 자동차 제조사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우리가 이러한 강점들을 활용해 세계 자율주행차량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기에 필요한 해상운송 기술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

## 관련 사진

### □ 전경



### □ 내외부

